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북노회**

* 제 1 회 평북노회가 1912년 2월 15일 선천남교회에서 창립
* 제 73 회 평북노회가 1952년 3월 19일 부산평북노회당에서 재개
* 제111회 평북노회가 평북, 평동 합동노회로 1972년 1월 13일 동안교회에서

THE PYUNGBUK PRESBYTERY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문서번호 : 예정평북 제220-115호

시행일자 : 2026. 9. 23.

수 신 : 목사회원 및 장로총대

제 목 : 제221회 평북노회 임원선거 입후보자 공고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기원하며 문안합니다.
2. 제221회기 평북노회 정기노회를 앞두고 임원 선거관리규정 「제3장 제3조 3, 4, 6, 7 항」에 따라 임원(목사 부노회장, 장로 부노회장) 선거를 앞두고 등록한 입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입후보자

노회장 후보

- 이제학 목사 (강남시찰 관악중앙교회)

목사 부노회장 후보

- 기호1번 안영표 목사 (서부시찰 반석중앙교회)
- 기호2번 유우정 목사 (동시찰 가남교회)

장로 부노회장 후보

- 홍배식 장로 (동시찰 동안교회)

2. 후보자의 자세한 소개와 정책소견서는 평북노회 홈페이지 “노회공지”에 있습니다.
3. 문의 : 이메일 election@pbp.or.kr, 또는 선관위 서기 H.010-2115-3771
4. 첨부 : 노회장후보 등 각 후보의 프로필. 끝.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 북 노 회**

노 회 장 조 양 구 목사
선거관리위원장 김 신 일 목사



제221회~222회 평북노회 노회장 후보



- 성 명 : 이 제 학
- 교 직 : 위임목사
- 사무처 : 관악중앙교회

후보자 프로필

1. 인적사항

- 1) 이 름 : 이 제 학
- 2) 나 이 : 61세 (1965년생)
- 3) 현 주 소 : 서울 관악구 신림2동 (상세주소 생략)
- 4) 임직일자 : 1995년 4월 19일 (평북노회 안수)
- 5) 시무교회 : 관악중앙교회 (강남시찰)
- 6) 노회입적일 : 2003년 1월

2. 시무처(교회) 현황

- 1) 설립일자 : 1966년 6월 21일
- 2) 당해년도 총 예산액 : 580,000,000원
- 3) 세례교인수 : 433명
- 4) 제직총수 : 190명

3. 학력

- 1)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 졸업
- 2)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M.Div.)
- 3)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전공 (M.A)
- 4)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졸업 목회상담 전공 (Th.M. in Min.)
- 5)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졸업 목회상담 전공 (Th.D. in Min.)
- 6)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M.S.W.)

4. 경력

- 1) 교회
 - 연신교회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 (1991~1995년)
 - 안동북부교회 위임목사 (1996~2002년)

- 관악중앙교회 위임목사 (2003년 ~ 현재)

2) 노회

- 목사 부노회장(제219~220회기)
- 노회 서기(제201~202회기)
- 부회의록 서기(제199~200회기)

정 책 소 건 서

노회장에 입후보한 관악중앙교회 이제학 목사가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는 목사회원님과 장로총대님 !!

저의 바람을 몇가지로 요약해서 발표합니다.

1. 우리 평북 노회는 아름다움 믿음의 전통을 가진 모범적인 노회입니다. 전임 노회장님들과 부 노회장님들의 헌신으로 세워온 아름다운 전통을 잘 이어받아 노회가 평안하도록 노회와 지교회를 매사에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맡겨진 일들을 보다 지혜롭게,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가장 바람직하게 일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이해와 아량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막중한 노회장으로서 소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노회 규칙과 함께 평안의 사랑으로 콘트롤 타워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한국교회는 어려운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인 요인인 저 출산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예배의 정착으로 교회에 대한 예배의 헌신도가 급격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AI시대가 성큼 다가온 현실속에서 복음의 가치와 능력이 점점 약화되고 지식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때에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성령충만함으로 더욱더 영혼 사랑을 위해 전도하고 기도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또한 변화무쌍한 목회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노회의 산적인 행정은 더욱 간소화하고 신속히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회 제반의 문제요소를 인식하고 야기되는 갈등은 서로 충돌하기 전에 해결하므로써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돌리는 노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3. 이북5개 노회가 공유하는 남북의 복음통일을 준비하는 노회의 정체성을 잘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며 마침내 북녘 땅에 십자가를 세우는 일들이 속히 도래하도록 협력할 것입니다. 이를위해 탈북 청소년 캠프를 후원하고 탈북신학생들을 돌보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4. 출산율 저하와 함께 소멸하는 교회학교의 다시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며 전도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예수그리스도의 지상명령(마28장, 사도행전1:8)에 순종하겠습니다.

자립대상 교회를 위한 수많은 대안이 있을지라도, 일시적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더욱 요청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교회가 피부로 와 닿고 있습니다.

최근 기독교학교에 대한 성경교육과 예배에 대한 위축은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이에 맞서서 공동대책을 세우겠습니다(한국기독교공보 2025.7.14.참조)

교회학교 다시부흥은 성경적 교육의 활성화 함께 실제화를 통해서 입니다.

1)성경적 교육의 재확립과 복음으로 충만하고

2)전도의 실질적인 결실을 거두도록 전 노회적인 활동에 시동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목사회원님과 장로총대님 !!
저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노회를 바르게 인도하겠습니다. 나아가 총회를 바로 세우는 가이드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저를 채찍질과 사랑으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2026년 9월 1일 노회장 후보 이제학 목사

제221회~222회 평북노회 목사 부노회장 후보

기호1번



- 성 명 : 안 영 표
- 교 직 : 위임목사
- 사무처 : 반석중앙교회

후보자 프로필

1. 인적사항

- 1) 이 름 : 안 영 표
- 2) 나 이 : 66세 (1960년생)
- 3) 현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상세주소 생략)
- 4) 임직일자 : 1993년 4월 14일
- 5) 시무교회 : 반석중앙교회(서부시찰)
- 6) 노회입적일 : 1998년 1월 7일

2. 시무처(교회) 현황

- 1) 설립일자 : 1977년 2월 10일
- 2) 당해년도 총 예산액 : 129,500,000원
- 3) 세례교인수 : 48명
- 4) 제직총수 : 30명

3. 학력

- 1) 김제서고등학교 졸업
- 2) 호남신학교 신학과 졸업
- 3) 호남신학대학교 S.T.M. 신학석사
- 4) 장로회신학대학원 목회연구과정 졸업

4. 경력

- 1) 교회
 - 사평교회 전임전도사
 - 청풍교회 담임전도사
 - 둔덕교회 담임전도사
 - 무등교회 전임전도사

- 무등교회 부목사
- 거성교회 담임목사
- 반석중앙교회 담임목사
- 현) 반석중앙교회 위임목사

2) 노회

- 평북노회 회의록서기(제183~184회기)
- 평북노회 부회의록서기(제181~182회기)
- 서부시찰장 역임
- 고시부 부장 2회 역임
- 규칙부 부장 역임
-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역임
- 이북노회 체육대회 평북노회 체육위원장

3) 총회

- 총회 제108회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위원장
- 현) 제111회기 총회 총대
- 현) 평신도지도위원회 위원장

존경하는 평북노회 목사·장로 총대 여러분!

저는 목사 부노회장 후보 안영표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랜 세월 평북노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지켜 오신 선배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함께 동역해 온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목사 부노회장 후보로 나서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안영표, 너는 왜 이 자리에 서려고 하느냐?”

저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평북노회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노회에 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43년 동안 목회하며 성도님들과 울고 웃는 가운데 행복하게 사역해 왔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성도님들과 큰 갈등 없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며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공동체의 화합과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평북노회의 평안과 화합을 이루는 일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 회의록 서기를 맡은 이후 여러 부서의 부장과 위원장으로 섬기며 노회를 위해 일해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목회하시는 주님의 종들과 교회를 돕기 위해 힘썼으며, 이북 5개 노회와 총회를 섬기면서 남북한선교통일위원장과 평신도위원회 서기로도 일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노회가 맡겨 주신 일만큼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감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목회 기간은 길어야 4년 정도입니다. 저는 남은 목회 여정을 우리 평북노회를 위해 봉사하는 데 온전히 사용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서부시찰에서는 약 30년 동안 노회장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평북노회를 섬길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일하겠습니다.

첫째, 노회장님께서 노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필하겠습니다. 부노회장은 노회장님을 잘 돕고 받쳐 드리는 자리임을 잊지 않고 맡은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둘째,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입장이 다를 때 먼저 듣고 이해하며, 갈등을 키우기보다 화해와 화합을 이루도록 힘쓰겠습니다.

셋째, 노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들을 먼저 살피셨듯이, 어려운 환경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과 교회, 그리고 장로님들의 형편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목사·장로 총대 여러분!

우리 평북노회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노회, 하나 되어 화합하는 노회,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노회,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안영표에게 평북노회를 섬길 기회를 주십시오. 겸손한 자세와 성실한 마음으로 맡겨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북노회 목사 부노회장 후보

안영표 목사

제221회~222회 평북노회 목사 부노회장 후보 기호2번



- 성 명 : 유 우 정
- 교 직 : 위임목사
- 사무처 : 가남교회

후보자 프로필

1. 인적사항

- 1) 이 름 : 유 우 정
- 2) 나 이 : 56세 (1970년생)
- 3) 현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래비11길 (상세 주소 생략)
- 4) 임직일자 : 2000년 5월 2일
- 5) 시무교회 : 가납교회(동시찰)
- 6) 노회입적일 : 2004년 11월 19일

2. 시무처(교회) 현황

- 1) 설립일자 : 1972년 3월 9일
- 2) 당해년도 총 예산액 : 200,000,000원
- 3) 세례교인수 : 218명
- 4) 제직총수 : 115명

3. 학력

- 1) 서울장로회신학교 신학과
- 2) 장로회신학대학교 신대원(목연)
- 3)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M.P.S)
- 4) Grace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Dr.Miss.)

4. 경력

- 1) 교회
 - 한영교회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
 - 현) 가납교회 위임목사
- 2) 노회
 - 평북노회 서기 (제207~208회기)
 - 평북노회 부서기 (제205~206회기)

-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역임
- 교육훈련부 부장 역임

3) 총회

- 현) 제111회기 총회 총대

4) 대외 경력

- 제33대 양주시기독교연합회 회장
- 제16대 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 부회장
- 양주경찰서 경목위원회 위원장
- 재단법인 양주시희망장학재단 감사

소견서(공약)

목사부노회장에 입후보한 가납교회 유우정목사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는 평북노회 목사회원님과 장로 총대님들에게 저의 공약을 말씀드립니다. “순교와 신앙의 유산을 이어,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장자노회로!”

우리 평북노회는 1912년 창립된 이래 일제의 탄압과 6·25전쟁의 시련 속에서 믿음의 지조를 지켜온 한국교회의 ‘장자노회’이자, 신앙 절개의 상징입니다. 비록 육신의 고향은 이북 땅에 두고 남하하여 ‘지역 없는 노회’로 출발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지난 세월 동안 이 땅 전역에 수많은 건강한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케 하시는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노회와 한국교회는 인구 절벽, 다음 세대의 급감, 그리고 목회 환경의 급변이라는 커다란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 속에서 제221회기 목사부노회장으로 출마하며, 우리 평북노회가 가진 ‘이북노회’로서의 영적 정체성과 역사적 사명을 다시금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저는 겸손함과 섬김의 자세로 노회장님을 보필하고, 노회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과거의 영광을 넘어 미래 통일을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평북노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의 5대 핵심 정책을 약속드립니다.

[제221회기 5대 핵심 정책 공약]

1. 이북노회 정체성 강화 및 ‘북한교회 재건·통일선교’ 기반 확충

- * 내용: 평북노회의 뿌리인 평안북도 지역의 복음화 역사를 기억하고, 다가올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북한선교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 * 실천 방안: 통일선교 전문 교역자 양성 및 탈북민(북한이탈주민) 교우·목회자 지원 네트워크 확대.
총회 및 이북 5개 노회(평양·평남·평북·용천·함해)와의 협력을 통한 대북 선교 전략 공동 추진.

2. 역사와 신앙 전통 계승: '평북 신앙 유산' 기록 및 보존 사업

- * 내용: 105인 사건, 3·1운동, 순교자들의 신앙 절개 등 한국교회사의 중심에 서 있던 평북노회의 숭고한 유산을 다음 세대에 올바르게 물려주겠습니다.
- * 실천 방안: 평북노회 순교자 및 역사적 인물들의 신앙 내력을 담은 ‘평북노회 역사 사료집 및 영상 콘텐츠’ 제작.

노회 산하 목회자 및 청소년·청년들을 위한 ‘이북노회 역사 및 순교지 탐방 프로그램’ 정례화.

3. '지역 없는 노회'의 한계 극복: 시찰회 중심의 초지역적 네트워크 강화

- * 내용: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시찰회와 지교회들이 소외됨 없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합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 실천 방안: 시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모임 및 지역별 목회자 권역별 케어 시스템 도입.

원거리 거주 노회원들의 행정 편의를 위한 ‘디지털 노회 행정 서비스’ 강화.

4. 다음 세대(청소년·청년) 부흥 및 이북노회 미래 세대 육성

- * 내용: 교회 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북노회의 역사와 영성을 이어받을 미래 세대 지도자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 * 실천 방안: 노회 차원의 ‘다음 세대 교육 연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연합 수련회 및 교사 교육 지원.
이북노회 산하 지교회 청년·대학생 간의 연합 네트워크(평북 청년 연합) 복원 및 비전 캠프 개최.

5. 목회자 돌봄 및 공정한 소통 중심 행정 확립

- * 내용: 목회 현장에서 헌신하는 목회자들의 영적·육적 건강을 돌보고, 원칙과 화합이 바로 선 자랑스러운 노회를 만들겠습니다.
- * 실천 방안: 은퇴 목회자 예우 및 미자립·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자 상호 돌봄·상담 네트워크’ 운영.
학연·지연·파벌을 초월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및 위원회 공천 실현.

존경하는 평북노회 회원 여러분!

평북노회의 역사는 곧 한국교회의 역사이며, 순교자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조국 통일의 날, 옛 선진들이 예배하던 평안북도의 옛 예배당마다 다시금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우리 평북노회가 총회와 한국교회의 선봉에 서야 합니다.

저에게 목사부노회장의 직분을 맡겨주신다면, 섬기는 종의 자세로 노회장님을 잘 돕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더 겸손히 섬기며, 좋은 동역자가 되어 더욱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평북노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제221회기 목사부노회장 유우정목사 드림

제221회~222회 평북노회 장로 부노회장 후보



- 성 명 : 홍 배 식
- 교 직 : 시무장로
- 시무처 : 동안교회

후보자 프로필

1. 인적사항

- 1) 이 름 : 홍 배 식
- 2) 나 이 : 63세 (1963년생)
- 3) 현 주 소 : 인천 연수구 송도동 (상세 주소 생략)
- 4) 임직일자 : 2011년 6월 19일
- 5) 시무교회 : 동안교회 (동시찰)
- 6) 노회입적일 : 2013년 10월

2. 시무처(교회) 현황

- 1) 설립일자 : 1958년 6월 22일
- 2) 당해년도 총 예산액 : 9,467,490,000원
- 3) 세례교인수 : 6,030명
- 4) 제직총수 : 3,280명

3. 학력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 Univ. of Wisconsin-madison 사회학과 석사
-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박사수료

4. 주요경력

- 1) 교회
 - 동시찰 동안교회 시무장로
- 2) 노회
 - 노회 부회계 (제215~216회기)
 - 노회 회계 (제217~218회기)
 - 재정부 부장 (제219~220회기)
- 3) 총회

- 총회 헌법위원회 실행위원 및 회계 역임
-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회계 역임
- 총회 사학법개정위원회 회계 역임
- 현) 총회 신학교육부 회계

4) 대외 경력

- 송덕여자고등학교 교장 및 학원장 역임
-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초빙교수 역임
- 대한민국인재상 중앙심사위원 역임
-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회장 역임
- 현) 학교법인 송덕학원 이사장
- 현)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인천광역시회 회장

홍배식 장로 부노회장 후보 소견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족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나아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노회장에 출마하면서, 모든 일에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노회를 섬기겠다는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노회의 여러 부서와 임원을 거치면서 노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배우게 되었고, 총회에서 헌법위원회 위원 및 회계, 헌법재개정위원회 회계, 사학법 재개정위원회 회계등을 거치면서 총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한국 기독교 학교 연합회 회장을 거치면서 한국의 기독교 학교를 섬기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장로 부노회장의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노회를 섬기고자 여러분에게 다짐합니다.

첫째, 노회의 수립된 정책이 잘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회장님께서 노회장의 직을 시작하면서 수립한 221회기 정책들이 각 부서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일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돕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당면한 노회의 여러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시찰회 모임을 참석하면 각 교회별로 어려운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있음을 봅니다. 전도사 구직난, 목사님의 정년과 연결하여 퇴직금, 급증하는 폐교회 문제, 후임 목회자 선정의 어려움등의 문제를 봅니다. 곧 닥쳐올 쓰나미와 같은 문제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워 교회와 목회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문제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노회의 화평과 아름다운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저는 평북노회 장로회 회장과 평북노회 부노회장을 겸하여 섬기면서 많은 교회를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노회를 잘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여 많은 교회들이 노회 소속이라는 생각을 넘어 노회 참여자로 함께 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회에 봉사하던 분들만 참여하는 노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노회가 되도록

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회 사무실에 올 때마다 보는 사진이 있습니다. 즉, 노회 사무실에 붙어 있는
과거 노회장님 사진입니다. 제 116회기에서 117회기까지 노회장으로 섬기신
고홍석련 장로님이 저의 부친이십니다. 노회사무실에 처음와서 아버님 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시작하신 평북노회를 잘 섬기는 일
이 아버님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더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